

무스탕과 토스카나

겨울외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스탕, 토스카나는 모두 양모피(double face)를 의미하며, 양의 가죽을 털이 나 있는 상태로 벗겨 가공하여 털이 있는 부분은 옷의 안쪽으로, 내장쪽 면을 가공하여 옷의 바깥쪽으로 하는 재킷을 의미한다. 또한 무스탕은 다 자란 어미 양의 모피이고, 토스카나는 어린 양의 모피이다.

1) 어원

“무스탕”이란 독일에서 북미 또는 멕시코 쪽에서 자라는 야생마를 의미하여 1980년대 초에 양모의 원피를 수입할 때 수입 원명이 무스탕(mustang), double face, 또는 dressed lamb fur skin 등으로 되었던 것을 간단하게 무스탕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double face”로 부르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 국내에서는 양모피로 만든 재킷을 무스탕이라고 부르고 있다.

토스카나는 이탈리아 중부 지방의 지역명으로서 토스카나 지방에서 새끼 양의 가죽을 벗겨 털을 착색할 때 아름다운 3색으로 되어 있는 “마르모타”라는 동물의 털 색상처럼 가공하면서 “토스카나 마르모타”라는 원피를 만들게 되었고, 이때부터 새끼 양(레찰)으로 가공한 것을 모두 토스카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토스카나는 털이 3색이고, 가죽 면이 매끄러운 나뽀란(nappalan)으로 된 “토스카나 마르모타”만을 일컫는다.

2) 양의 종류 및 특성

양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3,000여종이나 되지만,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메리

노"종과 "엔트레피노"종의 양은 보온성이 높고 가벼우며, 부드러운 특성을 상대적으로 지니고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밍크가 생산지에 따라 등급이 다르듯이 양도 생산지에 따라 큰 등급의 차이가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과 서남 아시아, 호주, 남미, 인도, 파키스탄 등 양모피의 생산지는 많지만, 스페인산 메리노, 엔트레피노를 최고급으로 보며, 가격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훨씬 높다. 무스탕의 품질은 원피가 좋아야 하지만 가공기술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데, 원피의 가공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스페인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양모피의 종류

양모피는 털의 착색방법과 길이 그리고 반대쪽의 가공 형태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한다.

이를 구분하면

(1) 착색 방법에 따른 분류

- ① 털끝을 희게 하는 푼타(funta)
- ② 털끝에 형광 빛이 나게 하는 오시도(oxido)
- ③ 털 반대쪽 색상과 가까운 흰빛으로 하는 브리샤(brisa)
- ④ 털을 3색으로 하는 마르모타(marmota)
- ⑤ 털색과 반대쪽을 모두 같은 색으로 하는 톤 앤 톤(tone & tone)
- ⑥ 털색과 반대쪽을 다르게 하는 투톤(two tone)
- ⑦ 털끝을 쌀알 정도 크기로 희게 말아 놓고, 털 속은 밤색으로 처리한 컬리 스노우 탑(curlly snow top)

(2) 털의 반대쪽면 처리 방법에 따른 분류

- ① 아주 잔잔한 털이 나오는 버핑 된 것 같은 스웨드(suede)
- ② 면을 매끄럽게 가죽처럼 처리한 나뽀란(nappalan)
- ③ 위의 두 가지의 중간 형태인 누벅(nubuk) 등으로 분류한다.

4) 무스탕의 품질

가장 중요한 것은 원피의 품질이다. 아무리 봉제를 잘해도 원피의 품질이 낮으면 무스탕의 품질은 좋아지지 않는다. 좋은 원피로 된 옷은 우선 탄력이 있어 보이고 면이 촉촉한 느낌을 주며 털의 밀도가 높다.

원피는 원피 가공 공장(tannery)에서 생산된 시점이 길면 길수록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탄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재고 무스탕이 숨이 죽는 것처럼 반듯하지 않고 구겨진 것처럼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일 소재, 동일 색상이라 하더라도 수입 원피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공 공장에서 제때에 팔지 못한 재고 상태의 원피(stock)이기 때문이며, 크게는 50%까지 가격에 차이가 있다.

봉제면에서는 옷의 흐름이 바르고, 옷 전체의 색상이 일정해야 하며, 봉제선이 곧아야 한다. 봉제선이 바르고 바늘땀이 너무 넓지 않아야 하며, 특히 칼라, 커프스에 붙이는 fox, mink의 콤비네이션에서는 fox, mink의 모양이 곱고 풍만한 것이 좋다.

무게에서는 착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될 뿐 너무 가벼운 것은 털의 밀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보온성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다.

단추를 달 때 일반적으로 밑 단추를 같이 달고 있는데, 단추에 큰 힘이 갈 때는 밑 단추까지 한꺼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받침을 덧붙인 후 밑 단추를 보강하는 것이 좋다.

남성복인 경우, 속 주머니를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지만, 속 주머니가 있는

옷이 좋고 특히 이때 끝 처리가 매끄러워야 한다.

주머니가 옷자락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옷의 테두리 쪽에 힘을 주기 위해 보통 풀대 처리를 하는데 잘 만들어진 무스탕은 특히 이 부분이 매끄럽다. 무스탕 소재로는 대체로 라사도(rasado)라는 원피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엔트로피노"나 "메리노"종의 원피로 된 무스탕을 선택하는 것이 내구성의 면에서 유리한다.

5) 보관 방법

무스탕의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력을 보존하는 것이다. 심하게 눌리거나 접는 것은 좋지 않다. 옷을 옷걸이에 걸어둘 때 앞자락이 뒷자락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도록 바르게 걸어 둔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웨드 무스탕을 선호하는데, 스웨드 무스탕이 눈이나 비를 맞아 얼룩이 생기면, 마른 수건으로 털어 내고, 마를 때까지 두었다가 두 손으로 가볍게 비벼 주면 자국이 없어진다. 표면에 오물이 묻으면 박스 테이프로 살며시 눌러서 묻어 나오게 한다. 구입 시에는 여유분의 단추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세탁은 전문 업소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햇빛이나 형광등 아래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자외선의 영향으로 부분 탈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보관시에는 부직포로 씌워 옷장 속 같은 그늘에 걸어 두는 것이 좋다.